

Journal

소화기 내시경 검사 (1)

가장 흔한 소화기계 질환, 이제 간편한 내시경 검사로



글 | 윤진석
잠실 한술병원/대장항문과 과장

현 대의학에서 의사가 환자의 신체 내부를 직접 육안으로 관찰하고 싶은 욕망은 필연적인 것이다. 그 옛날 허준 같은 명의도 스승의 시신을 해부하였다 하지 않는가!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몸 속 장기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배가 좀 아프다고 마취하고 개봉하여 들여다 보고 이상 없으면 다시 닫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신체에 자연적인 구멍이 있을 때 그곳을 통하여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있어왔다. 특히 소화기계 질환은 세계적으로 심혈관 질환과 함께 가장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질환이 아닌가!

이러한 고민을 일거에 해결해 준 것이 내시경의 개발이다. 1868년에 Kussmaul이란 사람이 위내시경을 제작하여 사용한 것이 최초의 기록이다. 물론 초기엔 지금과 같은 광섬유가 없었으니 딱딱한 막대기와 같은 경성내시경을 사용하여 위를 관찰했다. 이는 환자에게 많은 고통을 수반하며 구부러지지 않으니 원하는 부위를 모두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점차 기술의 발달로 1958년 Hiroschowitz가 최초로 광섬유를 이용한 섬유위십이지장경을 개발하여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고 1983년엔 미국에서 전자내시경이 개발되어 선보인 이래 거의 모든 내시경이 전자내시경으로 교체되어 가고 있다. 현재는 내시경을 이용하여 초음파 검사를 동시에 시행한다거나 간단한 캡슐을 먹기만 하면 아무 고통 없이 위와 소장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오늘은 이러한 내시경 검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현재 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을 검사하는 위내시경검사와 소장 질환을 주로 검사하는 캡슐내시경 그리고 항문, 직장, 대장 및 소장의 말단을 검사할 수 있는 대장내시경 등의 세가지 내시경 검사가 주로 이용되며 내시경을 통하여 위장관을 검사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선 조기에 암 조직을 제거하여 암이 진행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기도 하다.

물론 위나 대장 또는 소장에 바륨이라는 약물을 넣어 위장관 X선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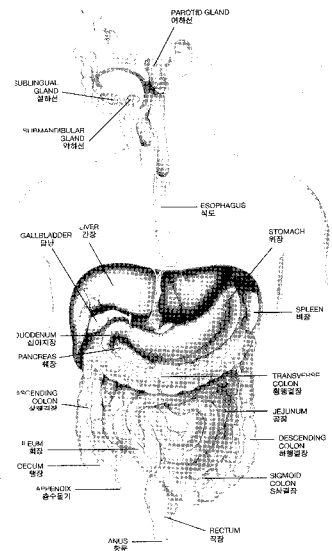
를 하는 방법도 많이 쓰이며 내시경 검사와 서로 보완하는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X선 검사만으로 발견이 어려운 작은 병변의 관찰 및 조직 검사 그리고 치료를 위해선 내시경 검사가 더 유용하고 최근 내시경의 고통과 공포를 없앤 수면 내시경 검사가 보편화 하면서 위장관의 일차적 검사로 내시경 검사를 권하고있다.

위내시경 검사는 유아에서 고령자까지 연령, 성별을 막론하고 식도, 위, 십이지장의 질환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으면 특별한 금기 사항이 없는 한 모두 내시경 검사의 적응증이 된다. 대표적인 질환은 식도염, 식도암, 위염, 위암,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등인데 “속이 쓰리다, 헛배가 부른다, 상복부 통증이 있다, 신물이 넘어온다” 등등 자주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이 모두 위내시경검사를 필요로 한다. 증상이 없어도 숨어있는 암, 또는 조기 암의 발견을 위하여 외관상 건강한 사람에게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다. 조기위암 발견을 위한 정기적 내시경 검사는 남녀 공히 40~55세까지는 2년에 1회, 55세 이상에서는 1년에 1회 검사가 추천된다.

위암에서 조기발견 조기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완치율을 보면 극명해진다. 조기위암으로 발견되어 치료한 경우 완치율이 90~95%가 되지만 조기위암을 넘어 진행된 경우엔 50%가 넘지 않는다. 우리와 같이 위암이 가장 흔한 암인 일본에선 1970년대부터 위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전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매년 위내시경검사를 하게 하여 위암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추었다.

위내시경은 6시간 정도만 금식하면 검사하는데 대부분 문제가 없으며 수면내시경을 통해 목의 통증과 구역질반사를 최소화하고 검사 시간도 5분 이내로 쉽게 시행할 수 있는 검사이다. 물론 검사 후 일상 생활에도 전혀 이상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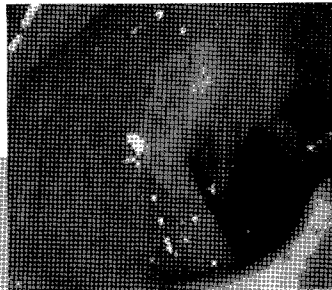
다음은 위내시경 검사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을 사진으로 곁들여 보았다. 다음 호에선 대장내시경과 캡슐내시경에 대해 자세히 소개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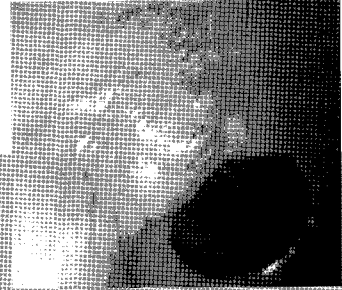
내시경을 통해 볼 수 있는 위장관



식도의 염



십이지장의 궤양, 궤양



위장장부의 조기위암

